

大韓舞踊學會 第 51號

# 고성오광대 문등북춤에 나타난 지역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lity Shown in Goseong Five-Clown Leper Drum Dance

김운미\* · 이미희\*\*

## 목 차

I. 서론

II. 고성오광대 문등북춤의 개관

III. 문등북춤에 나타난 지역성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 한양대학교 교수, E-mail : kimunmi@dreamwiz.com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E-mail : emhkdance@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남부지역의 탈춤은 지역적으로는 수영, 동래, 부산진, 울지, 신반, 진주, 창원, 진동, 산청, 통영, 가락, 고성, 가제, 가산에 분포되어 행해지고 있다. 경상도일대의 탈춤은 일반적으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인 부산일대에서는 "들놀음"(혹은 "야유"<sup>1)</sup>)으로, 서쪽인 경남일대에서는 "오광대"라 칭해진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남부 일대의 기타 지역에서는 흔적만 남아있거나 전승은 끊어진 상태이고, 대부분 1930년대까지 전승되어 오다가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도 1960년대 재기 부흥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경남일대의 오광대는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가산오광대 등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정월 대보름날의 연중행사로 장터, 마을 절마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마당에서 마을 전체의 대동놀이 차원으로 연회, 전승되어왔다. 특히 남부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덧배기 춤을 특징으로 하며 반주는 사물(쇠, 장구, 북, 징)을 중심으로 한 타악기를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남부 지역만의 공통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 통영, 고성, 가산 오광대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독특한 특성을 전승,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는 오광대는 그 유래에서도 지역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100여년전 바닷가에서 떠 내려온 궤짝 속에 책자가 들어있어 그것이 전파되어 오광대로 발전되었다는 것과, 초계 밤마리에서 행하던 이 오광대가 창원을 거쳐 가산, 통영, 고성, 울지, 진주 등 여러 지역으로 보급되었다는 설 (울지오광대기원설), 단지 통영의 오광대를 보고 고성으로 전파되었다는 설 등으로 축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설조차도 사료적 빈곤으로 인하여 뚜렷한 역사적 기록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통영오광대는 창원오광대의 영향을, 고성오광대는 통영오광대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종합해 봄으로써 오광대의 근원은 결국 한 맥락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뿐이다.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특정춤이 각기 다르게 생성, 발전하였기 때문에 춤에서 지역성까지도 도출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는 특정춤의 비교나 춤사위분석, 문헌조사 및 정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 삶의 표층문화가 춤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인의 정서가 가장 잘 표출되는 민속춤 중에서 고성오광대의 문등복춤을 중심으로 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문등복춤의 전체적 구조와 춤사위를 분석하여 그 춤에서 표출되는 지역성을 찾아보는 데 있다.

1) 野遊 : 들놀음의 한자표기

##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과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는 문헌조사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연구에 활용된 영상자료<sup>2)</sup>들은 고성오광대 보존회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들 중 춤사위 표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영상물로 제한하였다.<sup>3)</sup>

이에 논문에 수록된 사진 자료들은 99년 고성오광대 보존회 공연실황에서 얻어진 영상자료에서 추출한 것이다.

## II.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의 개관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는 고성오광대는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한 평민들이 울분의 탈을 쓰고 양반들의 비인간적인 추악상을 들춰내어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탈놀이이다. 제5과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첫 번째 문동과장은 멸시당하는 평민들의 삶 속에서도 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문둥이를 그린 과장으로, 당시의 계급적인 사회와 시대를 반영하고, 좌절과 번뇌의 한이 응어리져 있는 문둥이의 인생을 대변하는 과장이다. 그러한 문둥이의 비극적인 인생을 대사가 아닌 춤으로써 표현하는 방식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다.

전반부에서는 손가락 끝을 오므려서 비관하는 모습으로, 후반부에서는 소고와 채를 잡고 환희에 차 내면의 한을 신명나는 춤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그린다.

불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여 천형의 슬픔을 표현하는 춤으로, 춤이 투박하고 딱딱해보일 수 있으나, 조이고 푸는 것이 명확한 춤이다. 문동북춤은 1인무이며, 굿거리장단에서 시작하여 자진모리 장단으로 끝을 맺고, 덧배기춤<sup>4)</sup>을 추는 것이 특징이다.

### 1. 주요 춤사위

주요 춤사위와 구조분석은 선행논문<sup>5)</sup>과 기존 문헌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을 앞서

2) 영상자료 : 60년대 문화재청 등록 자료(60분)/고성오광대 당항포 공연실황, 1988. 4. 31/춤의 고을 고성 사람들 공연실황, 1999. 6. 1 ~ 6. 2/국립무용단 3북의 소리, 1997

3) 과거 60년대 자료들은 즉흥적인 요소가 많았고, 90년대 문동북춤은 대표적인 춤사위들을 대부분 내포하고 있었다.

4) 덧배기춤은, 남부지역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춤이다.

5) 양인영(2004), 고성오광대의 기본무 무보 및 미의식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이소희(2001), 가면극에 나타난 탈북춤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황규선(2004), 고성오광대 문동북춤 춤사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언급하였다. 춤사위 순서를 전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적이거나 반복되는 춤사위들을 축약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에 주요춤동작 및 소고춤, 서사적 동작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1> <표 2>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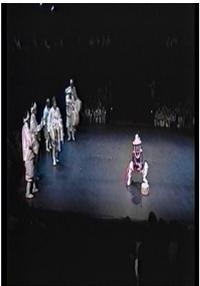
표 1. 주요 춤동작

용어	비틀사위			
설명	문등복춤의 첫 번째 등장하는 동작으로, 비정상적인 움직임 표현하는 대표적인 춤사위이다. 손을 오므린채, 굵거리 장단에 맞추어 한쪽 다리를 중심으로, 무릎과 양팔을 비비면서 위치를 바꾸면서 좌우로 혹은 양팔을 떨면서 추기도 한다.			
사진				
용어	배김사위 <sup>6)</sup>			
설명	춤을 추어 나가다가 한 번씩 맺어주고 푸는 춤사위로 남부일대의 대표적인 춤사위라 할 수 있다. 힘차게 배기었다가 추는 배김사위는 경상도 춤의 중요한 동작이다. '배김새' 라고도 불리우는데 경상도의 덧배기춤 <sup>7)</sup> 에서 이 춤 동작의 특징이 나타난다. 앞으로 몸을 던져 팔을 꼭 누르듯 내리찍는 동작을 취한다. 왼쪽 다리를 굽히고 오른쪽 다리를 뻗으며 왼손을 당겨 오른 볼 쪽에 대고 오른손을 뒤쪽으로 뻗는 것이다. 배김사위는 춤의 동작과 분위기를 전환할 때 적절히 사용된다. 일을 하다 매듭을 짓는 것과 같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사진				

6) 고성오광대, 문화재청, p110

7) 김은경(1996), 한국민속문화연구, 집문당, p203 덧배기의 어의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장단을 배긴다”, “장단을 메긴다” 또는 “힘차게 박는다” 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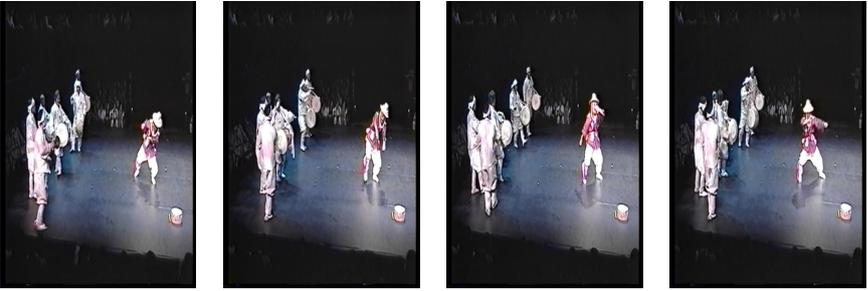
표 2. 소고 춤동작

용어	북 어우르기			
설명	문둥이가 소고를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룬 동작이다. 손등으로도 쳐보고, 어우르기도 하면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동작 등을 취한다.			
사진				
용어	소고춤 <sup>8)</sup>			
설명	땅에 놓여진 소고를 쥐고 뒤로 물러나 소고를 오른발로 차서 올리거나 소고를 차서 한 바퀴 돌리는 춤사위이다. 소고를 8자를 옆으로 눕힌 형태로 돌리기도 한다.			
사진				
용어	소고채 놓치기			
설명	소고를 잡으려 노력하고 눈물을 머금고 재도전하는 동작으로, 뒤로 물러나 자기 한탄을 하면서 자기의 무능력함을 속상해 한다.			
사진				

8) 황규선(2004), 고성오광대 문둥북춤 춤사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p109

용어	소고 채 잡기
설명	소고채를 어렵게 손등으로 잡아 머리를 이용해 손에 끼우고, 소고를 잡고 뒤로 걸어보고, 소고도 쳐보고, 발로도 쳐보면서 흥에 겨워 춤을 춘다. 자진모리 장단으로 바뀌면 자유롭게 소고를 들고 덧배기 춤을 추면서 퇴장하는 마지막 춤사위이다. 침 뺏고 뛰오르기, 소고채 들기, 소고 들고 뒤로 걸기, 소고치고 놀기, 폼나는 걸음 등이 있다.
사진	

표 3. 서사적 동작<sup>9)</sup>

용어	코푸는 사위
설명	양쪽 손가락을 오므린 채 손등으로 코를 풀고 손등에 묻은 콧물을 옷에 닦는 동작이다.
사진	

9) 황규선(2004), 고성오광대 문등북춤 춤사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p109

용어	파리잡기
설명	온 몸에 벌레들이 있어 몸이 간지러워도 손가락이 없으니 팔등으로라도 간지러움을 해소시키는 동작과 손바닥에 침을 뱉어 파리를 정신없게 만든 다음 파리를 잡는 장면이다. 먹을 것 구하기도 힘든 배고픈 문둥이는 잡은 파리를 먹고 입을 닦으며, 손등전체로 코를 풀어 반대손등으로 코를 떨어내고, 즐겁게 어우르기를 하며 뛰어다닌다.
용어	보리이삭줍기
설명	길가에 있는 보리이삭을 주워 먹으려 하는 동작으로, 중심도 잡지 못하고 이삭을 문드러진 손으로 모아 바람에 흩날려 보내기도 하면서, 손등으로 이삭을 까먹으며 즐겁게 노는 춤이다. (보리이삭줍기, 보리이삭먹기, 바람에 까불기 등)
사진	
용어	울기
설명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 지에 대한 한과 부모와 조상을 원망대목이다. 소고를 바라보며 서서 울다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한다.
사진	

## 2. 춤사위 및 구조 분석

### 1) 사실적인 묘사와 서사적인 구조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문둥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문둥이의 행위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동작으로 표현한다. 손가락이 없는 문둥이는 손을 오므린채 다리를 흔들며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등장한다. 그 외 두드러지는 동작들로는 코푸는 동작, 파리잡는 동작, 보리이삭먹기, 우는 동작, 소고를 놓치는 동작 등이 문둥이를 표현하는 사실적인

묘사동작이다. 이 동작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코풀기, 파리잡기(파리먹기, 입댈기, 코풀기, 코털기). 보리이삭먹기(보리이삭줍기, 보리이삭먹기, 바람에 까불기), 울기(서서울기, 앉아서 울기, 통곡하기, 일어나기), 소고춤동작(소고채 놓치기, 소고채 잡기, 소고 어우르기)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문동이를 대변해주는 사실적인 동작들을 통하여 그 내용이 전달된다. 곧 이러한 동작연결은 서사적인 구조를 띠게 된다.

## 2) 가락과 가락 사이의 전환점

사실적인 동작 이후에는, 그 연결방식이 맺음과 푸는 동작을 하거나 즐겁게 뛰는 춤사위를 주로 한다. 이런 행위는 동작과 동작, 가락과 가락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일종의 즉흥적인 요소로서 힘차고 상승적인 느낌을 준다. 이 때 대부분 배김사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동작은 한쪽 발은 길게 뻗고 쿵 짝은 다음 양팔을 크게 펴거나 크게 풀어주는 동작을 말한다.

이 배김사위는 지역별로 전형적인 양식성을 가지고 있다. 연행자들은 저마다의 덧배기춤을 추다가 악사의 신호장단이나 연행자의 신호에 맞추어 다같이 '배김'을 하게 된다. 배김은 동태적인 동작인 도약무를 한 다음 땅바닥으로 착지를 하여, 정태적인 사위를 추게 된다.<sup>10)</sup>

이러한 동작연결은 소고춤 형태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졌다. 소고채를 잡으려다 놓쳐 뒤로 물러날 때 혹은 다시 소고채를 잡기 위한 재도전을 위해 분위기를 전환해줄 때 배김사위로 연결하여 추어진다. 배김사위 이외의 다른 연결동작으로는, 어우르기, 뛰기, 풀기, 소고를 발로 차면서 도는 사위 등이 사용된다.

## 3) 스토리전개방식

처음 등장한 문동이는 불편한 팔과 다리를 떨면서 비틀사위를 추며 등장한다. 파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먹고, 생활이 어려웠던 문동이가 먹을 것이 없어 보리이삭을 주워 팔꿈치로 으깨어 먹는 장면 등에서 사실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소고를 발견한 문동이는 소고를 잡기 위하여 이쪽 저쪽 살피면서 소고채를 잡는다. 그 순간, 자신의 비애를 다시 한번 절감한다. 재도전해보면서 내면의 욕망이 드러난다. 몇 번의 고초를 겪은 후, 그제서야 비로소 소고를 잡는다. 소고를 잡은 문동이는 자진모리 장단에 맞추어 신명나게 춤을 추면서 퇴장한다. 이렇듯 문동복춤은 도입부와 종결부가 명확하며, 기승전결이 있는 춤이다.

문동이의 사실적인 행위들을 관찰하고 동작화하여 서사적인 연결과 스토리를 전개한다.

경남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병환자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과장으로 독립시켜 춤으로 표현하였다. 놀림거리로밖에 치부되었던 문동이의 위상과 일상 속에서의 동등한 대우 및 존중에 대한 의미 또한 담고 있다.

10) 이상우(2004), 한국가면극의 연행방법 연구 :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 p30

#### 4) 즉흥성과 반복성

60년대 영상자료를 보면, 특별히 사실적인 동작이나 정해진 동작 이외에는 모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허튼 춤사위들이었다. 대부분 그 지역에 재능있는 사람들이 춤을 추었기 때문에 정립되지 않은 춤사위들로써 뚜렷하게 정해진 동작연결이 없으며 배김사위 정도를 바탕으로 한 즉흥춤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가 나타났다. 60년대에 추어졌던 동작들을 그대로 추면서도, 서사적 연결동작에 있어 훨씬 세련되고 부드러운 조화를 이루며, 사실적 동작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 정립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순서가 또한 점차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현재 모두 비슷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동작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즉흥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반복성과 즉흥성이 혼합된 동작들로는, 소고를 발로 차면서 돌기, 소고를 어깨에 얹고 우쭈대기, 팔을 양 옆으로 펴서 돌거나 어르기, 위로 도약하면서 활개치기 등이 있다. 이 동작들은 배김사위의 특성을 바탕으로 추어진다.

#### 5) 소고의 의미와 갈등구조의 상승효과

문둥이의 삶을 서사적 구조와 내용으로 연결하다가 소고의 등장으로 또 다른 전환점을 갖는다. 많은 악기 중에 우선 문둥이가 잡기 힘든 도구로 소고가 등장한다. 소고가 맞부딪치면서 문둥이의 기분을 한층 북돋아주고 신나게 흥이 오른다.

일반인들이 쉽게 잡을 수 있는 소고를 문둥이가 힘들게 잡는 행위는, 문둥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기분이 고조되어 신명이 절로 나는 부분이다. 이 자체가 문둥이의 힘든 삶을 그리고자 하는 중요한 장면이다. 문둥이가 소고를 잡았을 때 추는 즉흥춤은 그야말로 문둥이가 일반인들과 똑같이 해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무아지경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문둥이의 의지와 소망을 그린 장면으로, 이것은 춤으로써 문둥이의 삶을 승화시켜주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문둥복춤은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문둥이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준 것이다.

소고라는 도구를 통하여 문둥이와 일반 사람들의 대등한 관계를 표현하였고, 타악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신나게 흥몰이를 할 수 있어 소고의 등장은 문둥복춤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춤 도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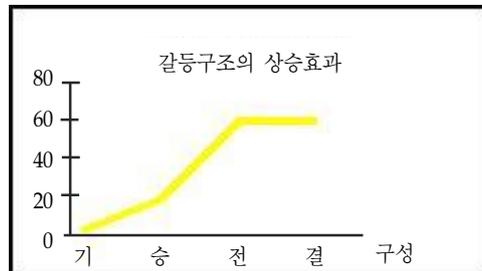


그림 1. 갈등구조의 상승효과

### 6) 현대 공연예술형식의 연관성

통영의 경우 양반의 횡포를 비판하는 내용을 신랄한 대사로 풍자하는데 반해, 고성에서는 양반의 횡포 보다는 문둥이의 한을 승화하고 유희와 신명으로 흥에 겨운 한 판의 춤을 춘다. 문둥이라는 한 개인의 삶과 애환을 다루기 때문에 문둥이란 존재를 관객에게 인식하고 소통하는데 더 주력을 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지금의 공연예술형식과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극적 표현이 많은 다른 지역의 오광대와 달리, 춤으로만 표현되다보니 문등복춤은 연희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연희자의 재량에 따른 즉흥적인 요소와 춤을 통하여 관객과의 공감대형성 및 소통 등 그 내용이 전달되고, 마당이라는 원형공간과 현장감 등은 모두 공연예술의 일회성과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이는 고성만이 가진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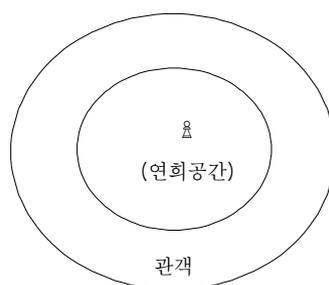


그림 2. 원형무대 형식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

### 7) 미적 가치

한국의 춤은 '한'이라는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춤들이 많다. 사적 근거로 인한 민족의 한은 예술을 빚대어 표현되어 왔으며, 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내용에 있어 비판

과 풍자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춤을 통해 정신을 수련하고 마음을 풀어주며 승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춤이 다른 나라의 민속춤 보다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동북춤은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부터 문동이의 한에 대한 정서를 담고 있으므로, 민족의 '한'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관객들은 이러한 문동이의 한을 대사가 없는 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감하고 소통, 해소하는 것이다. 내용과 그 형식에 있어서도 '한'에 대한 교감은, 한국인의 정서 및 춤 예술로써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학적인 부분까지 함유하는 것이다.

### Ⅲ. 문동북춤에 나타난 지역성

#### 1. 고성 지역의 문화적 특성

1500년 전 소가야의 도읍지로 역사를 연 고성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육지의 남단, 경상남도 남부 연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남해안 교통요충지로서, 거제시, 통영시, 마산시, 진주시, 사천시 등 5개시가 동서남북에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주업으로는 농, 어업 적지이다. 하천은 군의 중심부에서 사방으로 흐르고 있으며, 기후로는 해양성 기후대에 속한다.

푸른 산과 비옥한 들, 온화한 기후가 조화를 이루어, 산업화된 지역이나 대도시 지역에 비해 경쟁력있는 지가와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에 비교 우위성을 가지는 곳이다.

호국충절이 깃든 당항포관광지 등의 자연과 경관 및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관광지로서 발전할 잠재력이 무한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천혜의 자원과 고성평야의 기름진 땅, 바다를 끼고 있어 인심이 후덕하여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높은 문화적 전통과 역사를 가진 곳이다.

신라시대의 불교문화, 향교와 사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가 매우 발달하였으며, 문화재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인 고성오광대와 제84-가호로 지정된 고성농요가 지정되어 있으며, 고성의 문화재들의 저변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확대를 가져 오고 있다.

#### 2. 문동북춤의 지역적 특성

##### 1) 연희자의 역할과 구성태로 본 지역성

##### (1) 문동이역의 탄생의미

통영, 가산, 고성오광대에 문둥이과장이 모두 들어있는 점을 보아, 경남일대는 문둥이와의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경상도는 열대성 영향으로 피부질환 환자가 많아 문둥이가 많았다는 의견도 있고, 특히 경남지방 곳곳에 나병환자촌이 집결되어 있다고 하니,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오광대의 문둥이 존재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sup>11)</sup>

이러한 경남지역 일대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문둥이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가면극에 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병환자들에게는 많은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도 설움을 받는 나병환자들의 이야기를 오광대를 통하여 또 언급되어지는 것을 원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성오광대의 문동북춤은 현실에서 표현하기 힘든 나병환자들의 설움을 예술로서 승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형식을 통해 본 지방문화

경남지방의 각 지역별 문둥이과장을 살펴보면, 가산은 독무가 아닌 5인의 문둥이등장과 통영은 한명이지만 대사형태가 주를 이루는데, 고성은 내용전달방식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사가 전혀 없는 춤으로만 전달하고, 그것이 군무가 아닌 독무형태를 띠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근원은 한 뿌리를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발전하면서 다른 형태와 구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지역적 영향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른 형태의 문둥이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오광대 유래를 살펴보면,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놀이패들이 전파하다가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구성인원을 5명으로 줄였다는 기록을 볼 때,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의 독무 또한 구성인원의 축소로 인한 결과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선행문화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문화적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탈놀이가 서울에서 경남으로 내려와 구성인원이 축소되고, 통영, 가산, 고성 오광대로 전파되어 각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발전, 정립하여 결국 고성만이 가지는 독특한 독무형식의 문둥이과장이 생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2) 춤사위로 본 지역성

### (1) '보리이삭줍기' 등의 춤사위를 통해 본 농업경제사회

덧배기춤은 다른 지역의 오광대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나, 보리이삭줍기, 파리잡기 등의 사실적 표현은 고성의 문동북춤이 가지는 특징이다. 그 밖에 농사짓는 모습, 수확하는 모습, 수확된 곡식을 갈아서 바람에 날려 깎지를 버리고 먹는 모습 등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행위의 사실적 묘사는 고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둥이와 농업경제사회 때문에 생길 수

11) 경상도 일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가면극에서는 문둥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있는 동작으로 볼 수 있다.

‘보리이삭줍기’란 춤사위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농업사회를 짐작케한다. 이러한 행위표현은 중부나 해서지역의 탈놀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동작이기 때문이다. 고성의 기후는 온화하여 혹서라 하여도 37도를 초과한 바가 없으며 혹한이라도 -11도를 하강한 바가 없고, 토지는 대부분 양질로써 농사를 짓는다.<sup>12)</sup>

그러나 그 유래를 보면, 오광대가 초계밤마리라는 상업경제지역에서 각 지역으로 유입된 경로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농업경제사회를 중시한 고성의 경우, 초계밤마리에서 유입된 오광대가 농업사회를 바탕으로 변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혹은 이러한 오광대를 통해 고성 이 농업경제사회의 토착화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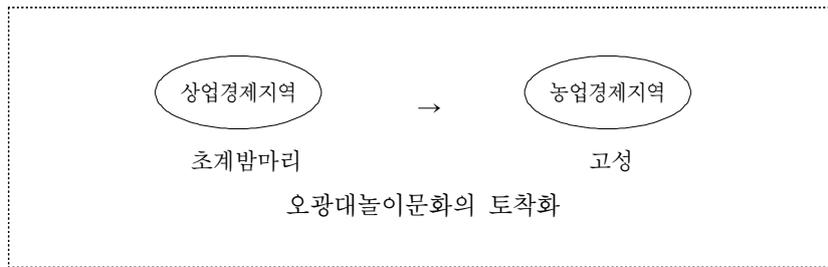


그림 3. 오광대의 유입과정

**(2) 민중적인 춤**

문동북춤은 주요춤사위 및 서사적 동작, 배김사위를 주로 하는 즉흥춤 즉 덧배기춤으로 주어진다. 즉흥춤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뚜렷하고 다양한 동작들이 많지는 않다. 그것은 연희자가 전문춤꾼이 아니라 대부분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출신들이기 때문이다.

높은 지대가 없고 광활한 들판이 많은 고성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놀이문화였다. 대부분 농민 출신의 오광대 연희자들은 놀이문화로써 춤을 추었기 때문에, 구경꾼들과 함께 즐기는 즉흥춤이 많아 저절로 대중화될 수 있었으며, 들판에서 추는 신명나는 춤을 민중들이 바라보면서 함께 소통하는 마당극으로 전문적인 춤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민중적인 춤으로 평가할 수 있다.

12) 고성군, 「통계연보1997(제36회)/고성군」, p31

## IV. 결 론

고성오광대 문등북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지역적 특성과 춤의 관계, 그리고 춤을 통해서 표출되는 지역성을 살펴보았다. 주요춤사위와 구조분석을 통하여 연희자의 역할과 구성태, 춤사위로 본 지역성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적 흐름과 더불어 춤사위의 형태가 지역성을 지니면서 완전한 춤으로 점차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배김사위라는 경남지역만의 독특한 춤사위가 동작연결이나 전환에 즉흥적으로 추어지고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러한 동작연결과 즉흥성, 대사없이 1인춤으로 상황을 서술하는 형식은 다른 지역의 오광대와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문등이촌이 곳곳에 집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문등의 애환과 갈등 구조를 손놀음이 주가 되는 소고춤을 통해서 표출되고 다듬어지면서 고성오광대 문등북춤은 그 형식에 있어서 미적가치를 지닌 공연예술로 정착되었다.

넷째, 지방문화적 성격으로 선행지역에서 지방문화로 유입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형태가 1인춤으로 축소, 정립되었다.

다섯째, '보리이삭줍기'와 같은 사실적인 묘사동작 등을 통하여 고성의 지역적 특성이 도출되었다.

여섯째, 높은 지대가 없고 광활한 들판이 많은 고성지역에서는 민중놀이문화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마당이라는 넓은 원형공간에서 연희자와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고성이란 지역으로 인하여 고성오광대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보존과 전승이 잘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지역성이 춤을 통하여 표현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성향의 변화와 춤의 특성변화가 비례하면서 전승, 발전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발전이 거듭되면서 기록, 보존을 소홀히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이처럼 민중적인 놀이문화가 춤으로 발전한 것은 그 형태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기록되지 않으면 더 더욱 보존과 전승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성오광대 문등북춤의 전체적 구조와 춤사위를 분석하고, 고성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문등북춤의 지역성을 살펴보는 것은 기록보존에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춤과 지역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역의 춤이 시대적 변화양상에 따라 체계적인 정립과 발전을 통하여 지역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성군, 「통계연보1997(제36회)/고성군」  
 고성오광대, 문화재청
- 김은경(1996), *한국민속문화연구*, 집문당
- 김은경(1979), *경남가면무의 미적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 김수엽(2000), *경남지역 탈놀음의 특성*, 경상대 경남문화연구(2000.12), 1~19
- 김지혜(2006), *오광대 연희 구성형식의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문화재 관리국  
 (1990), 승진무, *중요무형문화재 해설*
- 서연호(1989), *야류, 오광대 탈놀이, 열화당*
- 양희철(1989), *오광대 가면극의 지역문화성 연구- 중앙선행문화의 수용과 변용을 통하여, 경남대 가라문화연구소 가라문화7집(1989.12), 187~231*
- 양인영(2004), *고성오광대의 기본무 무보 및 미의식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 이상우(2004), *한국가면극의 연행방법 연구 :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
- 이소희(2001), *가면극에 나타난 탈복춤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 최상수(1984), *야류, 오광대 가면극의 연구*, 성문각
- 황규선(2004), *고성오광대 문동복춤 춤사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 황지윤(2005), *평양검무 춤사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 <영상자료>
- 60년대 문화재청 등록 자료(60분)
- 고성오광대 당항포 공연실황, 1988. 4. 31
- 춤의 고을 고성사람들 공연실황, 1999. 6. 1 ~ 6. 2
- 국립무용단 3복의 소리, 1997

## Abstract

### A Study on the Locality Shown in Goseong Five-Clown Leper Drum Dance

Kim, Woon-Mee · Lee, Mi-Hee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focused on ascertaining a locality through Goseong Five-Clown Leper Drum Dance, one of the traditional dances in which Korean traits are distinctly expressed.

Since dance is the surface culture of human life, looking for the character of a region expressed through dance is a way to discover the identity of our dance. Therefore, this study, as the first step of the plan,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nces of Mundunbukchum of Goseongogwangdae and the regional characters, by studying the relevant literature and video documents.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 its motion had been arranged with local characteristics over time. Such characteristics are distinctly shown in realistic expression and descriptive construction.

Second, connection and diversion, the unique factors of the dances of the residents in Southern Gyeongsang Province, and impromptuness, periodical repetitivity and nonspeaking solo danc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per Drum Dance express local characteristics well.

Third, the locality is well shown in the significance of snare drums and the conflict between lepers, and also Goseong Five-Clown Leper Drum Dance is esthetically significant even in performing arts.

Fourth, the form has reduced and established into a one-man dance while it flew into the local culture from the preceding region as a local cultural character.

Fifth, the regional character of Gos대춤 was derived through the realistic descriptive movement such as 'Picking the ears of barley.'

Sixth, the communications between entertainers and the audience took place in the Madang, a large circular space which the public entertainment culture is easily accessible

---

to in the Goseong region that does not have hilly areas but much extensive field.

On this wise, the general construction of the Leper Drum Dance and its motion were analyzed concurrently with local characteristics, and conversely, the locality was ascertained on the basis of the result. It is considered that such researches are significant in various aspects.

Consequently, local dances should be continuously protected and studied in respect that local characteristics have been expressed through dances and locality has been changed proportionally with the change of dancing characteristics.

**Key Words:** Goseong Five-Clown, Leper Drum Dance, Locality

\*논문투고일 : 2007년 5월 25일

\*심사일 : 2007년 5월 28일

\*심사완료일 : 2007년 6월 15일

